

7/23/17

설교 제목: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 히브리서 12:1-3

(히 12:1) 이렇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절판주** 히 11:2-38

(히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믿음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 장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정의와 함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이 쪽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

여기에 나열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름을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린 것입니다.

이어서 12 장 1 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히 12:1) 이렇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증인들'이란 바로 앞 장에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믿음의 증인으로 내세워 이 편지를 받아 보는 당대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기자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삶을 그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던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여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경주를 다 잘 마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진 경주를 잘 마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삶을 곧 잘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도 종종 우리 믿음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한 것을 그가 쓴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전 9: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고전 9: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전 9:26)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고전 9: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으로다

달리기 경주에서는 참가한 사람 모두가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목표를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뚝 사람만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완주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당연히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바로 이 '인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2 장의 핵심 단어입니다.

여기서 달리기 경주란 마라톤 경주를 말합니다.

단거리 달리기 경주에서는 순간적으로 힘을 폭발시키는 순발력이 요구되지만 마라톤 경주에서는 순발력보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가 요구됩니다.

마라톤은 42.195km(약 25miles)를 뛰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라톤 주자들의 말에 의하면 특별히 마의 구간이라고 하는 30km 전후와 그리고 40km 전후에 이르게 되면 몸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죽을 것만 같다고 합니다.

이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럴지라도 결코 포기하면 안되는 이유는 그 고통을 인내하는 자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목표에 도달한 자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인내한 자만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라'고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란 온갖 세상의 염려들 즉 돈 건강 자식 등등에 대한 염려들을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란 미움 시기 다툼 질투 거짓 탐욕 음란 등의 죄를 말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 가벼운 복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로잡아 지배하고 얽어 매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약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처음에는 달콤한 유혹과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죄 안에 있는 쾌락을 강조하고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된다고 속삭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육적인 방탕 허영 미움 시기 질투 음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 후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도록 충동질합니다.

여기에 넘어가 반복해서 범죄하게 되면 점점 범죄에 대한 양심이 무뎌지게 되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완전히 죄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죄의 지배를 받는 강박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적극적이 됩니다.

이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 매어서 가던 생명의 길인 믿음의 길을 돌이키게 하고 사망의 길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돈에 대한 사랑,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집착, 세상의 즐거움들과 죄의 유혹들을 벗어 버리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히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난해한 구절이므로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해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으로도 보겠습니다.

²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이 구절은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믿음의 창시자시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란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믿음의 근원 곧 시작과 끝 알파요 오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의하면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 예수님 자신을 믿음의 선구자(개척자)요 믿음의 완성자(완전자)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의하면 이 구절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앞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마치심으로써 결국 하늘 보좌 우편에 이르는 승리를 이루신 분으로 우리의 믿음의 최상의 모범이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믿음의 종결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두고 그 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우리의 최고의 모범으로서 우리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셨으며 어떤 고난을 헤쳐 나가셨고 결국 어떻게 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이 눈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일차적으로는 보좌에 앉게 될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것을 즐거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보좌 우편에 앉는 상급 자체를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상급을 즐거워하신 이유는 당신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당신과 하나로 묶은 교회 즉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즐거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참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한 이 모든 상급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인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란 뜻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돌이켜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주의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세상에서 눈을 돌이켜 믿음 경주의 종착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의 시선이 항상 코스의 종착지를 향해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오직 우리 앞서 가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롬 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롬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히 12: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 때때로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역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그 핍박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까닭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계산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산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살면서 계산없이 사는 사람처럼 대책없고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계산을 해서 갚고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계산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갚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마냥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대책이 없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 받은 성도인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계산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계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도 마다하지 않고 참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빛진 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과 고난, 수치당하는 것을 견디어 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삽시다.